산업통상부 | 보도참고자료 |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10. 30.(목)

2025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 20년 만의 APEC 의장국 재수임, 아태 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 제시 -

□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 이어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되는 해”라고 설명하며,

○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하였다.

○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언급하며,

○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 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일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통의 관심 분야나 목표를 중심으로 통상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협력 모델

○ 또한,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끝으로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동 세션에서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AI for Supply Chain)’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1. 참고자료
2. 회의사진. 끝.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세나	044-203-5930
		담당자	팀 장	지민정	044-203-5901
			주무관	이제훈	044-203-5904
	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파라	044-203-5920
		담당자	사무관	서준호	044-203-5924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이동구	02-2100-7652
		담당자	행정관	윤서정	02-2100-76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